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Indeterminancy)

이 정 후 · 양 숙 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Indeterminancy Expressed in the Postmodernism Fashion

Jung-Hoo Lee · Sook-Hi Yang*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Indeterminancy is one of the thought systems which explains all things with not 'either-or' but 'both-and', the conditions and qualities of human identities and inner state. A view of the world of Dionisos of Nietzsche's and the character of Manneristic trend which has resolved the sense of alienation of men by paradoxical expression has succeeded to romanticism, surrealism, and postmodernism.

1. Cross-dressing has increased under contemporary conditions. There also have been various cross-dressing phenomena in the past, but it appears strongly now that it would destroy the cultural stereotypes and give rise to the cultural insecurities in contemporary conditions.

2. The indeterminancy of status, that is, wealth versus poverty impacts on variations of contemporary dress. This has been represented by neglecting traditional code which is related to wealth in costume, by conversion of the symbols of wealth and poverty as disguise with moderation, simplicity, and additionally, poverty image instead of ostentation.

3. In the cultural aspect, that is mother culture/subculture, the author has investigated black street fashion which has newly become visible. The black street fashion is wide spread in black popular music such as Jazz, Rhythm & Blues, Reggae, and Rap which is subculture against white.

The external values of indeterminancy in fashion are neo-manneristic tendencies as deformation, eclectic, friction, and irrational structure, and graffiti method. The inner values by indeterminant expression in fashion are irony and paradox, grotesque, satire, and amusement.

Key Word : 불확정성(Indeterminancy), 포스트모더니즘 패션(Postmodernism fashion)

I. 서론

흔히 혼돈과 모호함이 현대의 패션풍경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실존의 불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되는 의미의 다양성과 더불어 복식의 구조자체가 규정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논자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미적 다원화 현상과 주관주의적 경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불확정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최근에 이르러 고전적인 의미체계인 확정성을 대신하는 새로운 가치와 사유체계가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내재되어 있는 공통원리로 불확정성을 상정하고 이것이 새로운 미적 원리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을 논함에 있어서 불확정성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혼란스러운 패션의 상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포스트모더니즘 내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의미체계, 패션을 창조하고 수용하는 디자이너 및 대중들의 태도와 방식을 불확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적 가치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존립하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양립할 수 없는 모순과 갈등을 조화로 극복하는 미적 인식의 가능성을 확대시켜주는 불확정성이 패션에서 보여지는 다원화 현상과 이중성을 설명하고 가시적 혼란을 또 다른 차원의 질서로 이끄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패션과 관련된 상징적 규약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문화적 원천이 됨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사회문화구조와 예술 및 패션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복식이 시각적 연구대상임을 감안하여 1997년까지 국내의 패션잡지에 실린 패션사진, 비평기사와 인터뷰 등을 다룬 신문 및 박물관 전시자

료, 기타 시각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포스트모더니즘의 형성과정

1) 이원론적 가치체계

철학적인 개념으로 시작된 이원론은 종교적 영역(선과 악), 조형예술 영역(미와 추)에까지 파급되어 로고스(logos)와 파토스(pathos)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 사유개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로고스/파토스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의 공식화는 17세기 Descartes 철학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는 자연을 정신(주관)과 물질(객관)이라는 두 개의 분할되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Descartes'적 분할은 물질을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조립된 제각기 다른 객체의 균질으로 보도록 했고 이것을 기초로 그의 기계론적 역학을 구축한 Newton의 우주관은 19세기 말까지 서양사상과 철학을 지배했다. Descartes적 분할과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정신적·문화적 측면에서는 많은 역작용을 초래하였다.

2) 매너리즘

완전과 조화, 균형과 통일 등 절대적 미적 규범을 중요시하던 르네상스의 기운이 점차 쇠퇴하여진 16세기에 들어서 최초로 예술가의 개인적 입장을 존중하며 감상자의 개인적 감정에 호소하는 양식이 생겨났는데 이를 매너리즘(Mannerism)이라 한다.

르네상스는 모든 정신적, 사회적 현상들이 고정된 체계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확신되던 시대였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사회적, 정신적 변화로 인해 야기된 불안과 혼란이 모든 영역에 파급되기 시작하였다¹⁾.

1) 이정후, 안산경, 양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매너리즘(Mannerim)적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 제33호, 1977, pp.158-159.

16세기 사회의 전반적 변화를 경험한 매너리스트들의 정신은 형태와 비례의 과감한 변형, 고전적 규범과 기준의 파괴, 그리고 이질적인 것을 결합하고 대비시키는 파라독스적인 특성으로 표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 관계를 역전시키는 양상도 발견되었다.

이처럼 매너리즘의 본질은 인간정신을 나타내는 이데아(Idea)와 시대상황이 만든 소외현상과 이원성을 승화시킨 파라독스에 있으며, 일반적 특성은 변형성, 모호성, 비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다.

3) Nietzsche의 디오니소스적 세계관

인간의 인식과 지식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19세기 말 Nietzsche에 이르러 극도로 부정적인 회의론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성제일주의에 반기를 들으로써 사고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한 Friedrich Nietzsche는 통일과 균형을 중시하는 'Newton적 세계관'이 상대성을 중시하는 중층적인 'Einstein적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중심인물이었다. 이런 점에서 Nietzsche를 포스트모던 사유로 진입한 선구자로 본다²⁾.

그는 「권력에의 의지」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양면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비극의 탄생」에서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대립되는 개념을 상징하면서 극단적으로 이론화, 형식화된 삶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제시하기 위하여 희랍 비극을 해명하였다. 그는 희랍비극에서 아폴론적인 요소와 디오니소스적인 요소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언제나 새로운 힘찬 탄생을 가져오고 이러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이중성의 결합으로 예술이 발전된다고 보았으며³⁾,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형식화된 이론과 이론을 추종하는 실천을 극복

하여 삶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키는데 철학의 목적을 두었다.

4) 초현실주의의 예술

초현실주의는 20세기 초반 다양한 실험적 창조작업이 시도되던 조형미술계에 있어서 순수한 허무주의를 표방하는 다다이즘의 일부 노선을 수렴하면서 등장하였다. 문명과 속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이성의 횡포로 억압되어왔던 무의식의 세계를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⁴⁾, 인간의 두면 중에서 어느 하나를 모르는 채 총체적 인간을 파악하려 함은 환영이거나 헛된 사고임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초현실주의는 낭만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며, 보다 멀리 있는 매너리즘의 정신을 계승하였다.

또한 초현실주의자들의 합일사상에는 동양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그들에게 동양은 원시적인 힘이 생동하는 세계로서, 넉넉하게 완전한 자유 속에서 우주적 정신과 영적 교류를 통해 합일을 이루는 세계이다. 그래서 그들은 동양을 '모든 희망의 성채(城砦)'라고 찬미하였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카오스를 확신하면서 무의식의 영역과 원시적 상태의 세계의 모습을 밝히고자 하였던 초현실주의자들의 접근은 Tristan Tzara가 말한 '우주적인 그리고 질서 있는 혼돈의 순수성 자체'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성을 토대로 구축된 고전주의 미학을 거부하고 선과 악, 미와 추, 고상함과 야비함 등이 분리되거나 대립되지 않은 채 한데 어울려 상호 침투하는 양면공존의 세계를 탐구하였다.

2. 포스트모더니즘과 불확정성

세계는 Derrida가 말한 바와같이 무한의 불확정

2)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서울: 청하출판사, 1992, p.29.

3) 강영제, 니체-해체의 모험, 서울: 고려원, 1995, p.18.

4) 신현숙, 초현실주의, 서울: 동이출판사, 1992, pp.22-25.

성으로 열려 있다.

사회구조적으로 계층간의 위계와 경계가 무너지고 수평적 관계의 사회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문화의 영역에서도 절대적인 미와 진리대신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되며, 각각의 영역이 독자성을 수호하기 보다 상호 침투하는 현상이 발견되는⁵⁾ 등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예술의 전 영역에서 불확정성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절대 이성의 결정체인 과학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모든 것을 들로 나누어 하나를 참, 다른 하나를 거짓으로 고착화시켜 온 상극적 진리에 대한 거부가 과학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퍼지(fuzzy)논리와 카오스(chaos)이론이다.

이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현대인은 기존의 질서나 관념이 아닌 새로운 관념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으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불안정한 자기규정과 표현의 혼돈이라는 정체감 상실의 위기와 소외를 겪으면서 카오스적 인식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새로운 카오스적 인식은 아우라(Aura)를 상실한 현대시대에 설득력 있는 사유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간내부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실재를 깨워 무의식에 호소하는 불확정적 사고의 의의를 부각시키고 있다.

III.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20세기 이전에는 패션을 단순히 일방적인 흐름으로 인식하였으며, 20세기 이후에도 Edward Sapire 나 George Simmel 등은 패션을 개성과 동조, 모방

과 경계라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포스트모던 맥락에서 소위 상징적 상호작용론자(Symbolic interactionist)들은 패션의 상징적 의미를 대인적 관계를 중심으로 성(sex), 관능성(sexuality), 연령(age), 계급(status) 등과 관련된 불확정성을 통해 설명한다. 문화적 범주의 불확정성을 패션과 연관지어 언급한 Fred Davis에 의하면 수세기 동안에 걸쳐 존속되어온 인간 정체성의 불확정성이 패션변화를 자극하여 새로운 영감과 전략을 제공한다⁶⁾.

Omar Calabrese는 Heinrich Wöelfflin이 제시한 두 개의 기본적인 미적 범주인 '고전(classic)'과 '바로크(baroque)'라는 개념을 패션에 적용시켜서 동일성(identity)의 스타일과 차이(differences)의 스타일이라는 '상반된 스타일'에 관해 언급하였다⁷⁾. 이것은 극단적인 이원론을 심화시켜온 Aristotle의 '논리의 사각형⁸⁾'을 인용하면서 이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즉, 상반에 위치한 관계는 단순히 도식적 대비의 관계로 파악될 수 있는 한편, 반대로 두 개의 상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공존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한 미적 범주가 모든 시대에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논리의 사각형의 경직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 불확정성의 출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상반되는 스타일의 결합은 모순적인 동기의 짝을 이루는 이원적인 결합만을 추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범위에 도달하게 된다는 '칵테일 효과(cocktail effect)'는 불확정성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본다.

다음의 그림은 Susan B. Kaiser, Richard H. Nagasawa, Sandra S. Hutton이 제시한 불확정성에

5) 윤난지, 80년대 이후 세계미술과 다원주의, 월간 미술세계, 1993, 1-4, p.64.

6) Davis, Fred, *Fashion, Culture & Identit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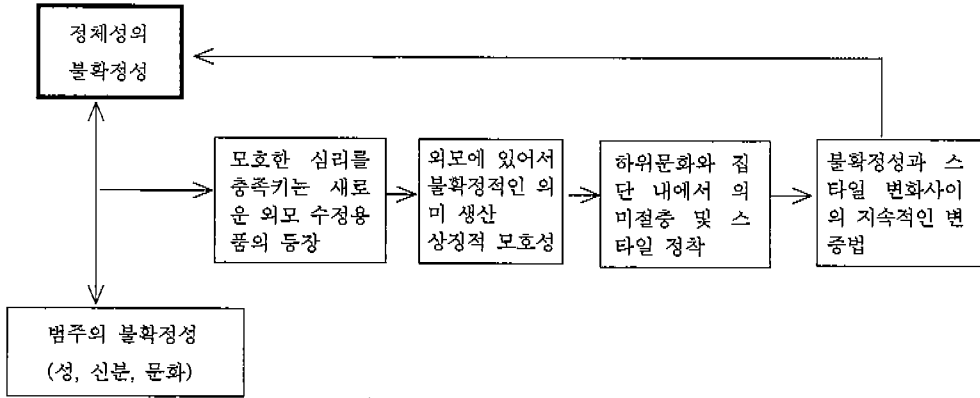
7) Calabrese, Omar, *Versace signatures*, New York · London · Paris: Abbeville press, 1992, pp.11-15.

8)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비대립의 원리(principles of noncontradiction)를 바탕에 둔 것으로 흑과 백, 삶과 죽음, 선과 악 등 상반되는 두 개의 요소들 즉, A와 B를 상반되는 위치에 규정한 사각형이다. 앞의 책, p.12.

의한 패션전과모형⁹⁾을 근거로 사회문화적 범주들 성, 신분, 문화의 측면에서 재정리한 것이다.

1) 크로스 드레싱의 개념

이성의 옷을 입는 행위를 일컫는 크로스 드레싱



<그림 1> 불확정성에 의한 패션전과 모형

1.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

중세이래 복식은 성별(sex)과 성역할(gender)을 인식하고, 각각의 성마다 정의된 이상적인 미개념을 가시화 하는 중요한 표현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서구에서 정의하는 성 규범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신체적 조건을 기반으로 사회문화적 성역할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남성적 행동과 여성적 행동의 영역에서 이탈하는 것은 극단적인 위반으로 간주되곤 하였고, 특수한 상황과 관습 하에서 묵인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반대성의 복식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억압된 성적 표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적 제이론과 문화적 다원주의, 절충주의, 그리고 자아 정체성에 대한 재규정과 하위문화 등의 영향으로 서양사상 속에 엄격히 구별되어 온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경계가 와해되고 패션에서도 성적 불확정성이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cross-dressing)은 과거에는 특수한 상황과 관습 하에서 묵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의 크로스 드레싱은 비정상적 행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크로스 드레싱은, 이원론이 야기하는 불안과 위기의식에 대한 문화적 표현으로, 고정관념을 붕괴하고 문화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저항적 측면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복식을 모방하고자 하는 경향이 그 역의 경우보다 빈번하여 크로스 드레싱은 비대칭적인 경향을 갖는다.

2) 크로스 드레싱의 분류

(1) 저항적

① 페미니즘의 영향

이분법에 근거해 전개되어 온 서구의 사상이 진정으로 인류의 발전에 공헌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제기와, 현대에 이르러 점차 '구분'이 '분열'을 낳았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9) Kiser, Susan B., Nagasawa, Richard H., Hutton, Sandra S., Construction of An SI Theory of Fashion: Part 1. Ambivalence and Chang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s, vol. 13, 1995, pp.175-181

분리하는 이원론에 대한 반발과 아울러 소외된 타자인 여성들의 분리된 자아와 나아가서는 분리된 세계를 회복하려는 페미니즘 운동의 전환이 야기되었다.

여권신장론, 남녀평등주의를 비롯한 모든 성 해방이데올로기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페미니즘(feminism)은 역사상 여러 갈래로 전개되어오고 있지만 위기에 대한 인식과 억압받고 불행한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통적인 동기를 지니며, 방법론에 따라 크게 도구주의, 표현주의, 양극주의, 통합주의로 가시화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체주의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페미니즘의 방법론적 유형중 크로스 드레싱에 영향을 미친 것은 도구주의, 통합주의, 그리고 해체주의이다. 도구주의적 개념은 여성의 해방을 남성적 특성에 대한 선망과 동일시함으로써, 복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남성적 특성을 모방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사진 1)



<사진 1> Ralph Lauren, '90-91 AW 「Collections」, p.165.

도구주의적 페미니즘이 일방적으로 여성복의 남성복화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남성의 우월성을 재 강화시켜주는 반면 통합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크로스 드레싱에도 영향을 주었다. 흔히 안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이라고 하는 통합주의적 복식은 여성복에는 기능적 요소를, 남성복에는 장식적 요소를 강화시켜 주었다.

패션에 있어서 진정한 양성화는 성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위한 모든 단서를 초월하고 복식을 착용한 사람의 시각적인 생물학적 특성 뿐 아니라 성역할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범주가 해체되어 제3의 성을 제시하는 해체주의적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처럼 패션에 있어서 양성화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반대성의 복식을 착용하는 것, 남녀의 복식 특성이 혼합된 조형요소와 원리가 차용된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 나아가서는 성 인식을 위한 모든 성적 단서가 소멸된 제3의 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② 동성에 정체성의 반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의 인간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특히 타인에 대한 성적 성향은 이성애적 성향이 보편타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은 두 개의 성(sex)과 두 개의 성역할(gender)을 일대일로 대응시킨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문화마다 일치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구 문화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¹⁰⁾.

과거의 동성애에 대한 정의는 범죄적·질환적 차원에서 치료되어야할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20세기 이후 페미니즘 운동과 함께 동성애자 해방운동이 전개되면서 단지 성적 성향의 차이임이 인식되고 있다.

동성애적 정체성과 관련된 크로스 드레싱을 일반적으로 '드래그(drag)'라 하며, 주로 무대에서 활동하는 동성애자 연예인이 이성의 복장을 했을 경

10) 이정후, 양숙희,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에 관한 연구, 복식, 제35호, 1997, 11, pp.116-117.

우 그들이 입은 이성의 복장을 지칭한다(사진 2). 일반적으로 남성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의 크로스드레싱 동기는 차이가 있다. 즉, 남성은 유희적인 목적을 위해 특정한 행사, 예를 들면 동성애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시위에서 이성의 복장을 착용하거나 일부 게이 무대에서 관객의 흥을 돋우기 위해 여장하기도 한다.



<사진 2> drags, 「Dressed to kill」 p.135.

여성 동성애 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성의 외모를 수용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상당수의 여성 동성애 자들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부정하고 남녀의 역할과 권리가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성 동성애자들이 고유한 성적 매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표식은 의복뿐 아니라 악세서리인 외알 안경, 쥘린, 쥘린 홀더, 시가들이었다.

20세기에 레즈비언 스타일인 남성 정장 드레스, 탑햇(top hat)은 Marlene Dietrich와 Judy Garland,

Madonna같은 연예인에 의해 대중적으로 수용되는 하이패션이 되었다.

③ 하위문화적 정체성의 반영

일반적으로 거리 하위문화패션에서 보여지는 상징적 의미와 영향력이 큰데 그것은 거리 하위문화패션이 기존 유행의 상징적 지배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도전하기 때문이다. 하위문화의 중심에는 대부분 도전과 저항, 일탈행위가 놓여있으며 그 중에서 성적 일탈과 관련된 대표적 하위문화로 글램 스타일(Glam style)과 뉴 로맨틱스(New romantics)를 들 수 있다.

글램 스타일은 1970년대에 영국에서 시도되었던 실험적 장르의 음악인 글램 록(glam rock)이 등장하고 이들 록 뮤지션들의 양성적인 외모를 대중매체에서 '글래머러스(glamorous)'라고 표현하면서 글램이라는 단어가 음악 장르와 스타일을 함께 일컫는 용어가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David Bowie와 Marc Bolan이 있으며 성(sex)과 성역할(gender)의 일대일 대응관계에 대한 실험과 도전을 행하면서 성의 문제를 중심적 이슈로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Wall과 Taylor는 '거세된 남성'이라고 비난하였지만 Angela Carter는 '억압된 것의 양면가 치적 승리'라고 변론하였다¹¹⁾.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번쩍거리는 옷과 사이키델릭한 색상의 표범가죽 의상, 화려한 색상으로 염색한 머리, 진한 눈화장, 은색 구두 등을 박은 하이힐 부츠로서 이러한 양성적인 장식 스타일은 당당히 섹슈얼리티 자체의 의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글램 뮤지션들 뿐 아니라 이들을 추종하는 팬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었다.

뉴 로맨틱스는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런던에서 처음 등장한 하위문화로서, 연극에서 사용된 의복을 수용하는 새로운 클럽과 잡지들이 생겨나면서 시작되었다.

11) Hebdige, Dick,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 Methuen, 1979, p.60.

Blitz Kids¹²⁾는 1980년 5월에 성 마틴 예술학교에서 개최된 제2회 패션쇼에서 수녀복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여 성과 종교가 깨어질 수 있는 금기임을 암시하였다. Boy George의 수녀복과 흑인들의 드레드락(dreadlocks)을 연상시키는 긴 머리, 여자 같은 화장 등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그의 독특한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

뉴 로맨틱스는 부드럽고 사치스런 이미지와 우아함, 섬세함을 강조하였으며 성혼합의 상징 물을 제시하였다. 19세기에 '위대한 남성의 거부(The great masculine betrayal)'가 나타난 이래 남성 복에서는 여성적인 요소가 철저히 외면당해왔기 때문에 이처럼 남성이 화려하고 장식을 강조하는 여성의 페미니티를 패러디하는 것은 성과 관련된 고정적인 가정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패션문화는 페미니티와 관련된 이미지를 공격하는 크로스 드레싱을 통해 페미니티의 고정관념을 보편화 내지 강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2) 도착적

도착적 크로스 드레싱은 크로스 드레싱을 통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복장도착 즉, 트랜스베스티즘(transvestism)을 일컫는데 이 용어는 Magnus Hirschfeld가 20세기 초반에 고안한 것으로서 흔히 페티시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크로스 드레싱에 대한 관찰자의 시각은 흔히 도착과 동성애적 측면에서 선입견을 갖는다. 즉, 스스로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혹은 유혹을 위해 반대성의 의복을 입는다는 도착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행위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Richard von Krafft-Ebing은 트랜스베스티즘은 동성애가 잠재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징표가 아니라 사실은 이성

애주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현상임을 지적하였다.

복장도착자들이 성적 만족을 얻는 이성의 품목에는 제한이 없지만 Elizabeth Wilson에 의하면 남성은 특히 검정 스타킹, 가터벨트, 섹시한 언더웨어, 가죽, 수녀복 등의 아이템을 통해 성적 환상을 경험한다고 한다.

1960년대 이후 페티시즘은 점차 패션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70년대 초반에는 킨키 부츠(Kinky boots), 가죽 의상, 롤셋 스타일 등 페티시즘과 연관된 이미지들이 패션 안에 수용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사진 3).



<사진 3> Dolce & Gabbana, '95 S/S

(3) 종교적

성경은 오랜동안 여성과 남성의 치장을 한정시키고 금기시하는 성문법적 지침을 제시하였으나 성적자들은 신의 양성적 속성을 모방하고 차용하는 것

12) 1978년 Chris Sullivan이 Soho에 있는 'Gossips'라는 클럽을 인수하여 'Bowie Night'이라 불렀고 이 클럽이 성공한 후 다시 'Blitz'라고 명명하였다. 이 클럽의 시작은 새로운 유형의 스타일을 대동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의 패션과 음악세계가 젊은이들에게 유행하였다. 이후 Blitz 하위문화 구성원들을 Blitz Kids라 부르게 되었으나 대중매체에서는 뉴로맨틱스라고 명명하였다.

이 허용되었다. 그 결과 종교복식은 성적 특성을 교차하는 경향이 있다.

서구문화에 있어서 종교는 성의 이분법을 확립시키는 동시에 성적 모호성을 이끌어내는 양면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예로 수도사와 수녀, 유대교 남성 등을 들 수 있다¹³⁾.

18세기에는 가장무도회에서 성적복이 변장수단으로 선호되었다. 특히 성이 역전된 종교복식에는 성적 함축성이 강하게 부가되어 종교적 아이덴티티로 크로스 드레싱하는 가장무도회는 가장 퇴폐적인 모임으로 간주되었다.

최근에는 연극과 영화에서 남성의 '수녀복장'이 성과 종교의 장벽을 실험하는 소재로 자주 제시되고 있다. 남성이 착용한 수녀복은 언외적으로 여성 혐오나 동성애 혐오를 전달할 뿐 아니라, 불안정과 변화를 강력히 전달함으로써 사회구조와 가부장제에 의존하는 정체성이 근거없음을 보여준다.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 종교복식의 모티프를 도입하는 것(사진 4)은 시대적 맥락에서 전통성과



<사진 4> Romeo Gili 「패션발상 트레닝」 4 p.9.

현대성의 절충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지만, 성적 불확정성을 제시하는 예로도 볼 수 있다.

2. 푸어룩(Poor look)

유행은 인류문화와 함께 상류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특히 귀족 대 평민의 계급장벽이 서서히 붕괴되고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신분구조가 등장하면서 특정한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던 복식 대신 금전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된 복식이 사회계층을 표시하게 되었다. 초기의 의류산업은 복식의 신분적 과시기능 즉, 고급소재, 내구성, 완벽한 디자인과 마무리, 기존 문화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써 판매를 조장하였다.

그러나 신분계급에 있어서 상류층과 하류층사이의 모방과 경계라는 유행의 수직적인 전파과정인 현대사회의 산업화, 기계화로 인한 유행의 획일화와 물개성화를 낳게 되면서 대중들의 반발을 야기시켰다. 아울러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텍스트 내에서 부와 빈곤이라는 이분법이 해체되고 절대적 하위개념이었던 빈곤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적인 서구 중심의 미학사상이 전도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과시적 부를 상징하는 오피쿠튀르 창조물의 독창성은 상실된 채 이미지만을 피상적으로 복제한 대량생산품이 대립된 신분상징인 부와 빈곤의 불확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순된 신분계급의 변증법으로서 빈곤한 이들은 부자로 보이길 원하고 부자인 이들은 빈곤하게 보이길 원한다¹⁴⁾는 신분상징의 불확정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관찰할 수 있다. 즉, 테디보이(teddy boy)처럼 빈곤한 이들이 부유하게 보이려는 상향적인 신분의 불확정성과 부유한 이들이 과시적으로 푸어룩을 착용하는 하향적인 신분의 불확정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적인 신분의 불확정성을 중심으

13) Garber, Majorie, Vested Interests - cross-dressing & cultural anxiety,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2, p.211.

14) Davis, Fred, 앞의 책, p.60.

로 고찰하였다.

1) 과시적 빈곤과 푸어룩

전통적인 빈, 부 상징체계가 전도된 예로 '과시적 빈곤(Conspicuous poverty)'¹⁵⁾을 들 수 있다. 이는 부를 과시하기 위한 전통적인 조형대신 빈곤미학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고정관념적인 부와 빈곤이라는 이분법적 신분 표현방법을 붕괴시키고 오히려 빈곤한 이미지를 택하는 것으로 이러한 모순과 불확정성이 복식에서는 푸어룩(poor look)으로 나타난다.

푸어룩은 '빈곤한 상태'를 순수하게 추구하는 비과시적 스타일과, 기존의 아름다움에 관한 모든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추의 미를 수용함으로써 '가난'과 '황폐', '불결'의 이미지를 통해 가장하는 역설적인 과시적 빈곤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혁명 이후 정치적 아방가르드에 의해 '단정치 않은' 외모가 연출된 이래 많은 사회 문화적, 예술적 요소들이 푸어룩 형성과정에 영향을 끼쳤으며, 최근에는 재활용, 폐품미학,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보다 다양한 푸어룩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푸어룩의 분류

푸어룩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관찰할 수 있다. 하나는 빈곤의 이미지를 차용한 푸어룩이고 다른 하나는 재활용에 의한 푸어룩이다.

빈곤의 이미지를 차용한 최초의 푸어룩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했던 'Pantalon', 'incroyable', 'merveilleuse'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절대적 미의 기준에 위배되는 치장과 단정치 못한 이미지를 도입하여 정치적 입장을 표방한 것이었다.

1920년대 후반에는 Gabriell Chanel이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라는 과시적 빈곤을 제시하는 디자인을 발표하였는데 이 역시 빈곤의 이미지를 도입한 푸어룩이었다.

1960년대에는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빈곤의 이미지가 확산되어 패션 디자이너들이 '민중'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하위문화로부터 출발한 의복이 상류 엘리트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 특히 청년하위문화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과시적 소비의 동기대신 비과시적 소비가 규범이 되었다. 비과시적 소비를 규범으로 삼는 대표적 하위문화로 히피, 펑크, 그런지 패션이 있다.

신분의 불확정성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아이템으로 블루진(사진 5)을 들 수 있다. 1850년대 금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진은 획일적이고 개성없는 의복에 대한 항변이었으며, 점차 청년문화의 중심에 자리잡으면서 청년문화를 대변하게 되었다. 이후 모든 신분계급, 성, 연령, 지역, 국가, 사상의 경계를 넘어서 대중적으로 착용되면서 세계적인 대중성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쪽에서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실용



<사진 5> Gianni Versace, 「The Face of Fashion」

15) 과시적 빈곤은 Quentin Bell의 '과시적 위반(conspicuous outrage)', Fred Davis의 '과시적 실수(disingenuous mistake)'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성, 계급의 부재라는 진의 기본 경향을 확산시키려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분과시와 관련된 전통적 요구 즉, 취향, 차별, 계급구분을 재도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재활용에 의한 푸어룩이다.

현대사회의 과학 및 산업의 발전은 인류에게 커다란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였으나 그 못지 않은 부작용도 함께 가져다 주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환경오염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려는 전 세계의 정책이 다시금 과학의 힘을 빌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구노력이 예술계에서는 정크아트(junk art)로 나타나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의 재활용은 1960년대에 자연에의 회귀를 회구하여 중고의류와 낡은 직물을 재활용했던 히피와 버려진 것, 일상용품을 복식에 도입한 핑크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재활용 패션은 기존의 패션에서 사용되던 소재와 차별되는 낡고 오래된 것, 버려진 것, 주변의 일상용품을 복식에 도입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고 패션의 소재영역을 확대시켰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또한 재활용 테마는 대중패션 뿐 아니라 캣워크에까지 도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분 상징의 측면에서 불확정성을 보여주고 있다(사진 6).

3. 흑인 하위문화 패션(Black subcultural fashion)

포스트모더니즘 맥락에서 억압된 것의 복귀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또 다른 예로 하위문화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있어서 하위문화와 거리스타일이 거리패션으로 정착되고 나아가서는 캣워크로 역유입되는 문화적 불확정성을 볼 수 있다.



<사진 6> Kyoko Higa '94-95 AW 「Collections」 III, p.225.

1) 흑인 하위문화의 본질

Gunnar Myrdal이 언급한 바 있듯이, 흑인은 민주주의의 커다란 딜레마이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발흥되어가는 서구 사회 속에서 백인들은 인간을 노예화하고 사물화하는 자신들의 비인간성을 합리화하고, 백인들의 지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 기제들을 마련했다.

Frederic Jameson은 “선한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악한 것은 타자에게 속한 것이다”¹⁶⁾라고 하면서 타자성이 악(evil)과 연관됨을 지적하였다. Frantz Fanon 역시 인종주의의 기본적 특성을 선악 이원론으로 파악한다. 특히 Fanon은 지성과 성의 상이한 두 범주 속에서 백인이 지성을 독점하고 흑인에게는 성적 특징만을 투사한다고 지적한다. 유럽문화의 근저를 이루는 성적 억압은 백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억눌린 성적 욕망을 흑인에게 투사하여 흑인의 이미지를 성적 존재로만 고착시켜 놓는다는 것이다¹⁷⁾.

16) Jameson, Frederic,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p.234.

17) 앞의 책, pp.161-168.

인간에게 본연적으로 정체성의 불확정성이 있듯이 흑인에게도 정체성의 불확정성이 있는데 이는 지배문화에 대한 동화(assimilation)와 거부(rejection)라는 양극적 감동과 연관된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타자의 수용, 억압된 것의 복귀를 표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소수, 하위집단, 추(醜)의 속성을 대표하는 흑인문화가 격상되었고, 1940년대 서인도제도의 흑인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거리 스타일이 인종을 초월하여 유행하고 나아가서는 하이패션의 세계에 진입하는 문화적 역류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흑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흑인 음악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경향은 흑인 음악 스타일의 영향을 받은 거리 패션으로 이어지고 있다.

2) 흑인 하위문화와 대중음악

오늘날 미국이 문화적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는 흑인 문화적 요소 특히, 흑인 대중음악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흑인 음악의 기원은 Holler song, work song, spirituals 등으로서 이러한 음악을 통해 억압받던 노예시절의 고통과 애환을 표출하였다. 흑인음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 부족민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행사와 사회적인 행사가 밀접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한 행사가 그들 음악의 존재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1) 재즈(Jazz)

재즈는 탄생자체가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 크리올들로부터 태동되었다. 그래서 재즈의 성격자체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아메리칸 니그로 및 크리올의 음악적인 감각과 유럽계 미국인 즉, 백인의 음악적 요소(악곡형식, 선법, 하모니, 악기 등)와의 혼혈로 태어나 미국 특유의 사회환경 속에서 댄스뮤직이라는 형태를 취하면서 발달하고 이제는 국제적인 현

대음악이 되었다.

1930년대는 스윙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스윙시대 후기에 새롭게 실험적인 음악인 밥(bop)이 등장하게 되었다. 1947, 48년경에는 밥 스타일의 지나친 열정에의 반성과 반동으로 '쿨(cool)'이 발생하였고 1949년경에는 리듬 앤 블루스, 일명 R & B가 음악산업계에 등장하였는데 이런 류의 음악을 '레이스 뮤직(race music)'이라 불렀다. 노예해방이후 19세기 말에 남부에서 탄생한 음악으로서 백인중심 사회에서 억압받고 차별받았던 흑인들의 분노와 처절함, 우울함(blues)과 비참함이 담겨있는 리듬 앤 블루스는 도피와 저항, 웃음과 슬픔이라는 양면의 감정이 담긴 음악이다. 재즈, 블루스와 가스펠 등 흑인음악은 백인의 록큰롤(rock'n roll)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후 1960년대에 재즈계는 새로운 양상을 띄기 시작한다. 즉, 복잡성과 단순성이 모순없이 공존함으로써 연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였으며, 핑크(funk), 프리 재즈(free jazz), 아방가르드 재즈(Avand-garde jazz), 에시드 재즈(acid-jazz) 등으로 발전되었다.

(2) 레게(Regge)

레게는 1960년대 중엽 자메이카에서 등장한 장르로서 라스타파리아니즘을 따르던 가난한 자메이카 사람들의 생활상이 반영된 음악이었다. '라스타파리아니즘(Rastafarianism)'이란 본명이 Ras Tafari인 이디오피아의 황제 Haile Selassie를 숭배하는 사상이었다. Marcus garvey의 '아프리카로의 복귀운동(Back to Africka)'에 부응하였던 라스타파리아니즘은 Selassie를 흑인들의 신으로 믿으며, 그가 백인에게 빼앗긴 고향 아프리카로의 복귀를 이루어 줄 것으로 믿었다. 'Reggae'라는 단어가 레코드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the Maytals의 1968년도 디스크인 'Do the Reggay'인 것으로 추측된다¹⁸⁾.

18) 세광사 편집부, 파퓰러 음악용어대사전, 서울:세광음악사, 1987, p.473-475.

(3) 랩(Rap)

1980년대 이후에는 뉴욕 브롱크스 지역에 사는 흑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 스타일인 힙합의 등장과 함께 힙합의 중심이 되는 음악인 랩이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70, 80년대 소울뮤직 등에서 나레이션같은 흥얼거림으로 사용되었는데 후에 댄스음악에도 이용되면서 랩음악으로 발전하였다. 흥겨운 리듬과 기계적인 기교가 가미된 댄스뮤직 유행시대에 몇몇 흑인 음악가들이 독특한 레코드 댄스 믹싱과 스크래칭 사운드(scratching sound)를 묘하게 조화시킨 음반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음악과 춤을 즐기며 의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젊은 흑인세대들, 즉 힙합세대들인 래퍼와 댄서들이 그것을 응용해 흥겨운 무대를 꾸미기 시작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랩에 변화가 일기 시작해 레게음악과 혼합된 분위기가 인기를 얻고 특히 미국에서는 갱스터 랩(gangster rap)이 넓게 확산되었다.

2. 흑인 하위문화 패션

본 연구에서는 흑인 하위문화 패션을 흑인 대중음악의 경로에 따라 재즈(Jazz) 스타일, 자메이카(Jamaica) 스타일, 힙합(Hip-hop) 스타일로 구분하였다.

재즈 스타일은 1차세계대전 이후에 서인도제도 와 미국남부로부터 시작된 대량의 흑인이주정책 과정에서 탄생한 음악인 재즈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이다. 재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윙(swing), 밥(bop), 프리재즈(free jazz), 펑크(funk), 애시드 재즈(acid-jazz) 등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주트 수트(zoot suit), 캐리비안(caribbean) 스타일, 힙스터(hipster) 스타일, 모더니스트(modernist) 스타일, 펑크(funk) 스타일, 애시드 재즈(acid-jazz) (사진 7) 스타일을 낳게 되었다.

자메이카 스타일은 1960년대 중반에 대두된 레게



<사진 7> Acid-jazz style 「street style」 p.120.

음악과 함께 발전한 스타일로서 특히 영국의 자메이카인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루드 보이즈(rude boys)는 자메이카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스포티브 댄디(sportive dandy)'를 정착시켰고 이들의 스타일은 백인중심의 하위문화인 스킨헤드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민족적, 다인종적 문화의 불확정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흑인해방과 아프리카의 복귀를 꿈꾸는 라스타파리안(Rastafarian)은 독특한 색채감각과 드레드락에 의한 라스타파리안 스타일을 창출하였으며, 이것은 이전에 나타났던 주티들과 반대로 흑인의 정체성과 저항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동시에 백인들에게까지 확산되는 문화적 경계소멸을 보여주었다.

힙합(Hip-hop)은 1970년대의 펑크가 백인중심의 문화를 형성했던 동안 미국 남부 브롱크스의 흑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문화로서 흑인의 근원적인 정체성을 탐색하려는데서 출발하였다. 힙합문화의 중심에는 MTV, 브레이크 댄싱, 랩핑, 그리고 그라피티가 있으며, 스타일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험령한 셔츠와 배기진, 트레이너복과 스포츠웨어를 취한다(사진 8), 점차 유명 브랜드의 의상과 화려한 악세서리 등으로 규정된 비 보이즈 스타일은 백인 중심의 소비문화를 조롱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열망

하는 양면적 기반을 토대로 구축된 힙합스타일의 양면적인 측면 즉, 저항적인 측면과 상향지향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한편 저급문화가 고급 문화로 역류하는 문화적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랩이라는 새로운 음악장르의 유행과 함께 청소년의 사고와 복식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 8> Hip-hop style

첫째 불확정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변형에는 형태의 변형(사진 9), 스케일의 변형, 그리고 균형체계의 파괴를 들 수 있다. 형태를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형태의 파괴, 비결정적인 여밈, 레이어링, 그리고 착장방식의 파괴 등이 있다.



<사진 9> 이신우 「패션발상트레닝」 2 p.57.

IV.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가치

1. 외적

1) 네오 매너리즘 경향

예술에서 최초로 불확정적인 표현 기법이 태동하였던 매너리즘 시대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와의 공통점을 지적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을 '수퍼 매너리즘'이라 칭하였던 C. Ray Smith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논자 역시 기법상의 유사성을 들어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일련의 기법을 네오 매너리즘이라 칭하고 그것의 특성을 변형, 절충, 마모, 비합리적 구조로 구분하였다.

신체의 특정부위를 인위적으로 과장,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스케일의 변형은 신체의 이상미에 대한 미적 인식 전환의 발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16세기 매너리즘 예술가들로부터 비롯된 자의식적인 신체 스케일의 변화와 상통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있어서 나타나는 균형체계가 파괴된 디자인, 예를 들어 수직, 수평적 구성선의 거부, 비대칭원리의 채택 등은 균형과 대칭의 속박에서 벗어나 형태에 새로운 생동감과 변화를 주어 추의 속성을 미의 영역으로 도입시킨 불확정성을 보여준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있어서 절충은 다양한 양식을 융합시키는 표현기법에 속한다. 여기서 양식이라 함은 남성과 여성, 젊음과 성숙, 부와

빈곤, 서양과 동양, 주류문화와 하위문화 등 복식을 착용하는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범주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라는 시대적 맥락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절충주의는 몽타주(montage)처럼 서로서로 관련있는 것 혹은 관련없는 의복구성요소들 즉, 아이템, 소재 및 직물특성, 디자인과 색상을 병치시키는 작업 혹은 패러디(parody)를 통해 비결정적인 의미와 불확정성을 전달한다(사진 10).



<사진 10> Monsieur Nicaole, '93 S/S 「Collections」 III, p.140.

구성요소 선택에 있어서 절충주의는 일종의 상반되고 모순적인 것을 함께 병치시킬수록 전통적인 규범에 대한 도전적 측면이 증가하여 의미전달은 더욱 다의적이고 모호해지며 나아가 최상의 파라독스적 미학인 그로테스크(grotesque) 효과가 발생되기도 한다.

셋째 마모이다. 마모와 마찰의 흔적이 처음으로 예술에 도입된 예로 초현실주의의 프로타주(frottage)를 들 수 있다.

복식에 있어서 사용되는 마모와 마찰기법은 소재 자체의 오래된 흔적을 통해 부와 빈곤, 미와 추의 불확정성을 실현시키는 방법과 구성을 통해 복식 수명

의 오래됨을 형상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가난함과 황폐함을 표현하기 위해 소재에 있어서 오래입은 흔적을 추구하는 마모 기법에는 페이딩(fading), 프링징(fringing), 찢기와 구멍뚫기, 탈색 및 염색, 구김과 불규칙 주름, 패치워크가 있으며, 빈곤이미지의 색상을 이용하기도 한다.

넷째 비합리적 구조이다. 복식에 있어서 합리성은 함목적성 즉, 기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복식의 비합리성이라 함은 기능의 거부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매너리즘 예술에서 나타났던 비합리적 표현이 인간의 저변에 내재된 제한되고 억압된 허약한 유체와 지상의 생명 속에 유폐되어있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했던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합리적 현상 역시 거대한 서사구조에 가리워진 자아를 찾기 위한 인식의 모색이라고 여겨진다.

비합리적 구조는 패션에 있어서 구성의 미완성, 착시기법, 구조적 불일치(사진 11) 등으로 가시화된다.



<사진 11> Nicole Club, '93 S/S 「Collections」 p.73.

2) 그라피티(graffiti) 경향

1980년대 이후 다원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영역이 해체되는 불확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영향을 미친 그래피티 룩은 불확정성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피티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저급의 지위를 점유하였으나 억압된 것의 복귀와 영역의 불확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함께 미술영역뿐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광고, 퍼포먼스 무대, 의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위문화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연관된 그래피티가 주류예술로 편입되고 거리스타일이던 그래피티 룩이 캐주얼로 상향 전파되는 탈 중심적인 현상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패션풍경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래피티가 도상, 지표, 상징 등 기호를 매개로 이용한 미술인 것처럼 도상, 지표, 상징의 그래피티를 복식에 도입한 것을 그래피티 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그래피티 룩에서 나타나는 도상은 도형, 만화와 이동적, 원시적 기법에 의한 그림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전달자와 수신자는 어렵지 않게 메시지를 전달, 수신하게 된다.

둘째, 지표를 이용한 그래피티 룩으로 전달자가 자신이 의도하는 메시지를 구체적인 문자를 매개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신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미전달을 인식할 수 있다(사진 12). 그러나 문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직접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문자가 사용되면 언어로서의 기능보다는 문양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게 된다.

셋째, 상징적 기호를 사용한 그래피티 룩이 있다. 그래피티 미술에 있어서 태그는 개개인을 구별해주는 상징의 역할을 하였으며 따라서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라벨, 로고 등도 그래피티 룩으로 확대시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디자

이너의 인지도가 클수록 수신자는 상징을 또 다른 하나의 지표로 인식하게 된다.



<사진 12> Moschino, '96 S/S 「Uomo Collezioni」 p.74.

포스트모더니즘의 탈 중심, 탈 장르, 개방화 현상으로 하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유행경향이나 룩이 불확실한 1980년대 이후는 세기말적 정신 세계의 갈등으로 나타난 기호와 추상적 형상, 원시적, 이동적 형태 등이 패션에 도입되어 티셔츠나 의복의 장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모델의 인체 위에 글자를 써넣는 기괴하고 비상식적인 패션이 등장하고 있다. 이제 그래피티는 패션의 주요 테마로 등장할 만큼 유행하여, 뉴욕 지하철 문화의 그래피티 작가들의 그림들이 티셔츠, 진, 기타 의복의 무늬에 도입되고, 특히 힙합과 연관된 그래피티의 거리스타일은 현대 주류시장으로 상향 전파하였다.

2. 내 적

1) 아이러니와 파라독스

아이러니(Irony)란 어느 한 가지도 단순히 옳다

고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불일치의 공존이 생존구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¹⁹⁾ 그것과 불상응한 성질을 부여하여 마치 그것을 승인하는 것처럼 보여줌으로 그것과 반대되는 현실적 상황을 명료하게 부각시키는 방법이다.

아이러니는 '이질적이고 상반된 감정의 균형'이라는 구조를 공통적으로 가지며 '상반된 부조화의 특질들의 균형과 조화'가 잘 나타나는 것이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불확정적 조화를 통한 진정한 삶의 회복을 주장한 Nietzsche의 양면적 세계관을 회상하게 된다.

아이러니는 강한 대조와 부정을 통한 변증법적 운동인 불확정성을 통해 다의성을 나타내며 여기서 아이러니와 파라독스(paradox)의 유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상반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아이러니와 파라독스는 그 구조뿐 아니라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양자긍정의 논리를 지닌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아이러니와 파라독스가 예술의 정신과 표현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A = B'라는 명제와 'A = C'라는 이율배반적인 명제를 하나로 묶어 제시함으로써 단일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중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묘사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곧 Brooks가 말하는 'either-or'의 원리를 거부하는 'both-and'의 원리이며, Blake가 언급한 바와 같이 Newton적인 인과론의 법칙의 기계론적 논리를 벗어나는 것이다²⁰⁾.

전통적 규범에 따라 부분들의 결합이 금지되는 때에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은 더욱 커다란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부와 빈곤의 대립개념이 결합된 과시적 빈곤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면 아이러니와 파라독스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과시적 빈곤(Conspicuous poverty)은 부와 관련된 전통적인 복식규범을 무시하고 부에 대한 직접

적인 과시대신에 절제, 간소 나아가서는 오히려 빈곤해 보이도록 가장하는 역설적인 스타일로서 이는 Quentin Bell이 언급한 '과시적 위반(Conspicuous outrage)' 혹은 Fred Davis가 말한 '과시적 실수(Disingenuous mistake)'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신분상징을 위해 불완전한 복장을 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뉘앙스'를 풍기는 광의의 푸어룩을 만들어낸다. 즉, 규범 위반 능력을 나타내거나 개성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과시적 빈곤은 신분상징의 역전을 통해 자아를 재규정하려는 현대인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2) 그로테스크(Grotesque)

20세기에 들어서는 그로테스크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다양한 견해들을 망라하여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Wolfgang Kayser에 의하여 문학과 예술에서 그로테스크가 중요한 미학원리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주목할 만한 미학적 분석과 비평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요즘의 경향은 그로테스크를 근본적으로 양면적인 것 혹은 대립적인 것들의 격렬한 충돌로 보며, 존재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표현으로 보고 있다.

그로테스크가 주는 정서적 반응은 크게 웃음과 공포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테스크의 웃음이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단순한 유머, 유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그로테스크에 내재된 웃음의 특성은 '공포로부터의 해방',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사회의 법률, 제도, 도덕, 가치관 등의 규범질서들은 사회 존속의 당위성을 뒷받침하여 우리의 안정된 삶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기능도 갖는다. 인간은 사회의 규범질서가 통용되는 안정된 삶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반면에 그것이 요구하는 사회적 금기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양면적인 욕구를

19) Muecke, D. C., 아이러니, 문상득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p.41.

20) Brooks, Cleanth, 잘 빛은 향아리: 뉴 크리티시즘의 실재와 이론, 이명섭 역, 서울: 종로서적, 1984, p.342.

갖는다. 또한 그로테스크의 웃음에는 해방적 욕구 이외에 새로움을 맛보는 즐거움과, 사회가 강자로 이름붙여놓은 거대 담론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가학적인 쾌감도 내포되어 있다.

그로테스크 미학 원리가 반영된 패션 역시 친숙한 현실의 규범적 질서가 극단적인 과장, 전도, 왜곡으로 나타나며, 현실의 극단적인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그 실상을 정확하게 포착시킨다. 이때 복식에 나타난 왜곡된 규범의 양상과 우리가 반응하는 정상적인 규범적 자세라는 두 차원이 일치하지 않는 괴리가 노출되며 그로 인해 지금까지 당연시되어오던 사회적 기준과 규범에 대한 의문이 드러난다. 현대인들의 타성에 젖은 삶에 대한 태도와 마비된 의식을 각성시키고 현실에 대한 인식과 성찰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자극하는 보다 강력하고 충격적인 수단이 요구되는데 그로테스크가 그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바야흐로 20세기의 날로 복잡해져가는 모순투성이의 세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세기말에 대한 본능적인 인간의 두려움을 표현해 주는 기능을 인정받게 되었다.

3) 풍자

풍자(satire)는 인간생활 특히, 시대 사회의 모순, 부조리, 우행, 악행 등을 지적하고 조소하여 끝까지(滑稽)적 효과를 자아내는 예술표현의 한 방식이자 그 주제를 말한다.

풍자는 현상과 이상, 외관과 실재의 차이를 날카롭게 의식하고 그 위선을 폭로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태도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대상과 대립하여 야유와 조소를 내포하거나 혹은 공격, 폭로 나아가서는 대상이 지닌 부정성을 개혁하려는 교훈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풍자의 효과를 가장 크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대조의 방법이 있다. 즉, 상이한 두가지 성격을 지닌 대상을 병치시키거나, 하나의 대상이 다른 하나를 연상케하여 그 차이점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다. 따라서 대조의 방식을 통해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상반되는 요소의 합일을 추구하는 불확정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된다.

복식에 있어서의 풍자는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과 부조리를 폭로하고 풍자하는 적극적인 방식의 풍자와 해학적·유희적인 표현방식을 빌어 완곡하게 풍자의 무게를 담는 방법 등 다양하다.

성격 특성이 혼재하는 크로스 드레싱은 남성을 우월시하는 사회적 관습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조롱하고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자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며, 사회적 측면에서 물질적 불균형과 그로 인한 인간 소외의 문제를 드러내는 역설적인 '과시적 빈곤'의 표현 역시 풍자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 불확정성을 표현하는 흑인 하위문화 스타일 역시 기존의 서구 백인 모문화 중심 일변도로 규정된 미적 규범을 해체하고 정치, 사회, 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풍자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풍자의 방식은 세상을 인식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 낙관주의적 풍자와 염세주의적 풍자로 구별되는데 복식에 있어서 낙관주의적 풍자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라피티 룩이다.

4) 유 희

포스트모더니즘 미학에 있어서 욕망의 일부는 새로운 규칙과 범주에 대한 탐색을 수반한다. 이러한 열정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불확정성이다.

유머는 크게 '우월감', '불일치' '심리적 이완' 등의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

패션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 미와 추, 모문화와 하위문화, 부와 빈곤 등 모든 범주의 이분법적 평가르기가 사라진 불확정성이 표현됨에 따라 정해진 미적 규범과 사회로부터 부가된 억압과 긴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해방감을 만끽하는 카타르시스

를 경험하게 된다.

심리적 이완에서 발생하는 유머효과는 현대에 이르러 '진지함' 대신 '가벼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는 실상과도 일맥상통하며, 패션에 있어서는 진지함이 추구되어야 할 영역에 일상적인 것을 도입시키고 혹은 그 일상에서조차 벗어나 자유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흐름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하나의 주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상반되는 모순의 질충, 무지, 하락, 강조, 변형, 불일치 등을 통해 표현되는 불확정성은 상식과 보편성을 뛰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유희효과를 갖게 된다.

V. 결 론

오랜 역사를 거쳐 인간의 정신은 세계를 변화시켜 왔으며, 그 결과 인간의 정신을 반영하는 패션에도 커다란 변화가 대두되고 있다. 즉, 세계와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 그리고 인간의 정신과 문화의 결과인 복식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미적 다원화현상과 주관주의적 사고를 불확정성이라는 새로운 사고체계를 통해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확정성(indeterminancy)은 인간의 정체성과 심리적인 내적 상태뿐 아니라 외적 현상 내지는 가치를 이항대립적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보완적 포용관계로 설명함으로써 이전의 모순과 갈등을 새로운 차원의 조화로 이끄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다.

예술에 있어서는 이미 16세기부터 사물에 대한 양면적 통찰과 작가 자신의 자의식을 표현하려는 시도가 매너리즘(Mannerism)으로 태동되었고 이어서 낭만주의와 초현실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계승되어 모든 이분법적 사유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거대담론에 의해 억압되었던 것들에 하나씩 새로운 힘을 부여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2. 불확정성은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다원화된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불확정성은, 패션의 변화를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포스트모더니즘 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이론들을 증재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정체성의 불확정성이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범주를 성, 신분, 문화로 구분하였다. 구분된 사회문화적 범주를 기반으로 불확정성이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로써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 푸어룩(poor look), 흑인 하위문화 패션을 들고 이를 고찰하였다.

1) 중세이래 복식은 성과 성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가시화시키는 중요한 표현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성과 성역할에 대한 일대일 대응관계와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반대성의 의복을 착용하거나 성적 모호성을 야기하는 크로스 드레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크로스 드레싱은 저항적, 도착적, 종교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에도 크로스 드레싱은 존재하였으나 주로 특수한 상황과 관습 하에서 행해졌던 반면 오늘날에는 이원론이 야기하는 불안과 위기의식에 대한 문화적 표현으로, 고정관념을 붕괴하고 문화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저항적 성격이 강하다.

2) 부와 빈곤이라는 신분상징의 불확정성은 푸어룩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와 빈곤이라는 이분법이 해체되고 절대적 하위개념이었던 빈곤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면서 패션에서 부와 관련된 전통적 규범을 무시하고 직접적인 부의 과시대신 절제와 간소, 나아가서는 오히려 빈곤한 이미지로 가장하는 빈, 부상징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푸어룩은 빈곤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과 재활용에 의한 푸어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프랑스 혁명기 이후 등장했던 정치적 아방가르드들의 의도적인

푸어룩은 1960년대의 히피와 70년대의 펑크, 80년대의 그렌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하위문화 스타일의 푸어룩 요소들은 엘리트와 대중, 지배문화와 하위문화와의 경계가 와해되면서 지배문화로 전이되고 있다.

3)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 측면의 불확정성은 흑인하위문화 패션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백인문화를 모문화라고 가정할 때 흑인문화를 하위문화로 보았다.

흑인의 정체성은 지배문화에 대한 동화와 흑인민족주의라는 이중의식의 경향을 가지며 스타일에 있어서는 상향지향적인 스타일과 저항적 스타일의 양면적 양상을 낳게 되었다. 특히 흑인의 문화는 음악 속에 그대로 융해되어 왔는데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재즈와 록, 랩이라는 독특한 장르로 정체성을 표출하였고 이것은 흑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초인종적 문화를 형성하였다.

음악을 중심으로 전개된 패션 스타일은 크게 재즈 스타일, 자메이카 스타일, 그리고 힙합 스타일로 나타났다.

4.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의 외적 가치는 네오 매너리즘 경향과 그래피티 경향으로 나타났다. 네오 매너리즘이라 지칭한 것은 16세기 매너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배경, 인간 소외의 문제, 예술기법상의 유사성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16세기 매너리즘의 특징인 변형성, 모호성, 비합리성을 바탕으로 네오 매너리즘 경향을 변형, 절충, 마모, 비합리적 구조로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인 작품분석을 통해 이를 시각적으로 규명하였다.

불확정성의 내적가치는 아이러니와 파라독스, 그로테스크, 풍자, 그리고 유희이다.

인간의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불확정적인 한 그리고 사회문화적 범주가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고 유행 전과과정에 자본주의의 이윤추구가 자리하고 있는 한 불확정성과 연관된 지속적인 변증법은 계속

패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영계, 니체, 해체의 모형, 서울: 고려원, 1995.
-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서울: 청하출판사, 1992.
- Calabrese, Omar, Versace signatures, New York · London · Paris: Abbeville press, 1992.
- Davis Fred,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Garber, Marjorie, Vested Interests-cross-dressing & cultural anxiety, 1992, New York: Harper Perennial.
- Hebdige, Dick,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 Methuen, 1979.
- Kiser, Susan B., Nagasawa, Richard H., Hutton, Sandra S., Construction of An SI Theory of Fashion: Part 1. Ambivalence and Chang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s, vol. 13, 1995.
- McRobbie, Angela (eds), Zoot Suits and Second-Hand Dresses-An Anthology of Fashion and Music, Boston: Unwin Hyman, 1988.
- Muecke, D. C., 아이러니, 문상득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 Polhemus, Ted, Street Style,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94.
- Taylor, Lou and Wilson, Elizabeth, Through the Looking glass, London · New York: BBC Books, 1991.
- Wilson, Elizabeth,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garo press, 1985.
- 김주영, 이정후, 양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그래피티(graffiti)기법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1997, 12.

- 양숙희, 이정후, 현대복식에 나타난 신분상징의 양면가치-부와 빈곤개념을 중심으로-, 숙명 여대 생활과학 연구지, 제11집
- 엄소희,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복식에 대한 연구, 복식, 26, 1995, 11.
- 윤난지, 80년대 이후 세계미술의 다원주의, 미술 세계, 1993, 1-4.
- 이민선, 복식에서 성의 가치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정후, 안선경, 양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매너리즘(Mannerism)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 복식학회지, 제33호, 1997, 7.
- 임영방, 포스트모더니즘을 위한 기본전제, 예술문화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 정현숙,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하지수,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호, 1994, 5.